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1

1. 다음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스승님께서 '영혼을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덕을 갖추는 것이네.
3 어째서 우리는 부나 명예가 아닌 덕을 추구해야 합니까?	4 부나 명예는 덕을 가져다주지 않지만 덕은 행복과 함께 부나 명예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네.

- ①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한적한 곳에서 홀로 진리를 탐구한다.
- ②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용적 지식을 쌓는다.
- ③ 지식과 덕이 별개가 아님을 깨닫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 ④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를 목표로 삼고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
- ⑤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주장을 동등하게 존중한다.

2. (가)의 갑은 중국 사상가, 을은 한국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성(性)은 순수하고 선한 것이다. 성은 마음의 이(理)이고, 정(情)은 성이 움직인 것이다. 측은수오사양시비(惻隱羞惡辭讓是非)는 정이며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성이다.</p> <p>을: 성은 이(理)가 아니다. 만약 성에 본래부터 인(仁)과 지(智)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어진 이와 지혜로운 이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선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p>
(나)	<p>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p>

- ① A: 사람은 선행의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가?
- ② B: 수오의 정을 확충해야 비로소 의가 형성되는가?
- ③ B: 사람의 성에는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는가?
- ④ C: 사람의 성은 순선하지만 악으로 변할 수 있는가?
- ⑤ C: 인이 내재함은 측은의 정을 통해 알 수 있는가?

3.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종이를 자르는 칼은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칼에 대한 개념을 가진 장인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인간에 대한 개념을 가진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실존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

< 보기 >

- ㄱ. 인간은 주어진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 ㄴ. 인간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 ㄷ.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ㄹ. 인간은 자유로우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창조해 나간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눈과 귀의 작용을 멈추게 하라. 몸을 떠나고 앓을 몰아내라. 정신을 집중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들어라. 기는 텅 비어 있어서 무엇이든 다 받아들인다.

을: 눈과 귀는 생각하지 못하여 사물에 끌려갈 뿐이다. 마음은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하면 얻을 수 있다. 마음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것이니, 큰 몸[大體]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몸[小體]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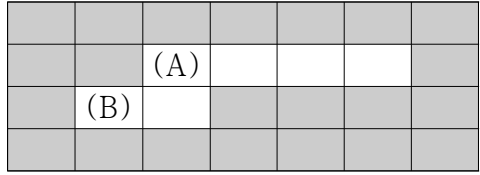
- ① 욕심을 적게 가지고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求放心] 한다.
- ② 세상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경지에 도달해야만 한다.
- ③ 외물의 속박에서 벗어나 절대 자유[逍遙]를 추구해야 한다.
- ④ 선의 실현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謙虛] 다투지 말아야 한다.
- ⑤ 마음에 도덕적 단서가 없음을 알고 규범을 내면화해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불변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학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을 진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구성하고, 생산해 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개념, 사고 체계, 이론 등은 모두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이다.

- ①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 얻게 된 모든 지식은 신뢰할 수 없다.
- ② 지식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발견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 ③ 진리는 실생활의 유용성과 거리가 먼 순수한 탐구 대상이다.
- ④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관념은 지식이 될 수 없다.
- ⑤ 절대적인 진리나 규범을 따르는 행위가 가치 있는 행위이다.

6. (가)의 갑, 을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인의(仁義)는 큰 도(道)가 무너지자 생겼고, 큰 거짓은 지혜가 출현하자 나타났다. 인의를 끊어 버리면 백성은 다시 효도하고 사랑할 것이다.</p> <p>을: 인의를 바탕으로 시비를 분별하고 언행을 가지런히 해야 한다. 선왕들은 성(性)을 변화시키려 노력했고, 그로부터 예의가 제정되었다.</p>
(나)	 <p>[가로 열쇠]</p> <p>(A): 이황이 임금께 올린 글로,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열 가지 도설(圖說)로 작성한 것</p> <p>(B): 플라톤이 추구한 이상적 인간. 선(善)의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p> <p>[세로 열쇠]</p> <p>(A): 개념</p>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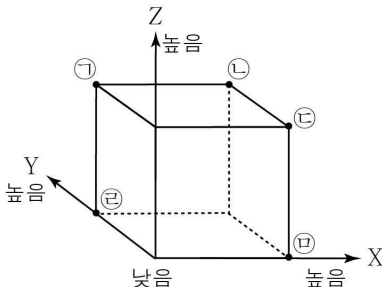
ㄱ. 갑: 예약을 참된 삶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본다.
 ㄴ. 갑: 고정된 마음이 없어 민심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ㄷ. 을: 인의를 인위적 노력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으로 본다.
 ㄹ. 갑, 을: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인 수양을 중시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이익은 그것이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 작용할 경우에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을: 처지가 가장 불우한 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원리는 재분배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개인은 자신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 X: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도
- Y: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강조하는 정도
- Z: 천부적 재능에 대한 배타적 소유를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8~9] 갑은 중국 사상가, 을과 병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마음[心]의 본체가 성(性)이며 성은 이(理)이다. 마음이 드러난 것이 의(意)이고 의의 본체는 지(知)이며 의가 있는 곳이 물(物)이다. 성학(聖學)은 하나의 공부이니, 지(知)와 행(行)을 둘로 나눌 수 없다.

을: 마음의 이치[理]는 방대하여 잡을 수 없고 넓어서 끝을 볼 수 없으니 경(敬)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면 어찌 성을 보존하여 본체를 확립할 수 있겠는가. 경은 마음의 주재이며, 만사의 근본이요, 성학의 처음과 끝이다.

병: 마음은 하나인데 도심(道心), 인심(人心)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性命), 형기(形氣)의 구별이다. 정(情)은 하나인데 사단(四端), 칠정(七情)이라고 하는 것은 이(理)만을 말하느냐 기(氣)를 겸하여 말하느냐의 차이이다.

8.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갑: 개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만 바른 사람이 된다.
 ② 을: 도덕성 구현과 사물의 이치 파악은 상호 무관하다.
 ③ 병: 도덕적 감정은 이(理)가 능동적으로 발현한 것이다.
 ④ 갑, 을: 세상에 마음과 관계없는 사물이나 이치는 없다.
 ⑤ 을, 병: 도덕성을 실현하려면 경(敬)의 실천이 필요하다.

9.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선을 보고 모르기도 하고 알고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선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선을 모르는 것과 같다.
 ③ 배우지 않아도 선을 알고 힘쓰지 않아도 선을 행할 수 있다.
 ④ 악취는 저절로 싫어하고 악행은 저절로 미워하게 되는 법이다.
 ⑤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다.

10. (가)의 관점에서 (나)의 밑줄 친 '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직접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 ○ 생산 성과를 분배할 때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나)	<p><u>이 국가</u>는 레닌이 주도한 혁명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계급이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평등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봉건시대 귀족 같은 새로운 특권층이 생겼으며, 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p>

- ①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② 모든 생산 수단의 사유를 보장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③ 자유 시장 경제에서 벗어나서 계획 경제를 실시해야 한다.
 ④ 사적 생산 수단을 모두 사회 공공의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
 ⑤ 경제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중앙 정부에 일임해야 한다.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3

11.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을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점]

갑: 쾌락은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없는 상태이다. 고통의 고통을 벗어나는 순간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죽음과 같은 최고의 불안을 던져 주는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때 정신적 쾌락은 최대가 된다.
 을: 쾌락을 추구하면 자신을 비난하게 될 것이고,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신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자신의 바람을 맞추어야 한다.

	질문	갑	을
①	운명을 개척해야만 행복을 얻게 되는가?	예	예
②	덕이 있는 행위는 자연법과 일치하는가?	예	아니요
③	쾌락은 진정한 선이면서 삶의 목적인가?	예	아니요
④	쾌락을 위해서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가?	아니요	예
⑤	행복을 위해서 검소와 절제가 필요한가?	아니요	아니요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해 서술하시오.

(가) 나는 한 나라의 사람으로서는 믿음으로 사귀고 자식으로서는 효도하고 부모로서는 자애롭고 신하로서는 공경하고 임금으로서는 어질어야 한다. 몸을 닦아야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온 세상이 화평하게 된다.

(나) 나는 이 가족, 이 부족, 이 민족에 속해 있다.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기대와 책무 등을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나의 삶에 주어진 사실이고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 학생 답안
 (가)는 ㉠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중시하였으며, ㉡ 인륜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추구하였다. (나)는 ㉢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되는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 공동체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 (나) 모두 ㉤ 구성원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근대 서양 사사가 갑의 입장에서 <사례> 속 K의 행위에 대해 내릴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용기와 같은 기질들은 선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해가 될 수 있다. 용감한 사람이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자체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의지뿐이다.

<사례>

K는 바다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평소 수영에 자신이 있었던 K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였다.

- ① 동기와 무관하게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 ②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 ③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의무를 다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 ④ 동정심에 기반을 둔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 ⑤ 자신의 안전보다 남의 생명을 우선시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14. (가)를 주장한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바람이 그쳤으나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 이치를 보았으나 망념은 스러지지 않는다. 깨친 뒤에도 오래 비추고 살펴 망념이 일어나도 따르지 말고, 덜고 덜어 무위(無爲)에 이르러야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다.
(나)	제자: 우리가 '궁극의 경지'에 이르려면 돈오(頓悟)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 _____ ㉠ _____

- ① 철저한 고행(苦行)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체득해야 하네.
- ② 경전과 교리 탐구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직관해야 하네.
- ③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서 나쁜 습성[習氣]을 없애야 하네.
- ④ 모든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바라밀(波羅蜜)을 실천해야 하네.
- ⑤ 인위적인 규범을 버리고 대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하네.

15.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본성상 공동체에 살도록 되어 있으며, 몇 개의 존락이 크고 완성된 단일 공동체로 결성될 때 자연스럽게 국가가 나타난다.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이며 으뜸가는 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다.

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비교적 평화롭지만 자연권을 향유하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자의 권리를 공동체에 위임함으로써 국가를 세운다. 국가는 오직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유지된다.


- ① 갑은 국민이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사회는 자연의 산물이고 국가는 인공물이라고 본다.
- ③ 을은 국가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수립된다고 본다.
- ④ 을은 복종할 국가를 결정할 권리가 개인에게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구성원들의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된다고 본다.

16. (가)의 갑, 을은 근대 한국 사상가들이다. 이들이 (나)의 <토론 주제>에 대해 제시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우리의 도(道)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그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며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진다.</p> <p>을: 우리는 일원상(一圓相)을 본받아 심신과 사리(事理)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수행이 무르익으면 영육쌍전(靈肉雙全)에 이른다.</p>
(나)	<토론 주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① 갑: 규범과 제도를 모두 철폐하고 무위의 도를 따라야 한다.
- ② 갑: 사람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을: 서로의 원한을 풀어내어 함께 살아가야[解冤相生] 한다.
- ④ 을: 우리의 정신을 지켜내고 일체의 외래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
- ⑤ 갑, 을: 물질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정신을 개혁(開關)해야 한다.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호감과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도덕의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



을

공리의 원리가 도덕의 원리입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입니다.

< 보 기 >

ㄱ. 이성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행위는 상호 무관한가?
ㄴ. 쾌락은 한 가지 종류이고 양적으로 계산 가능한가?
ㄷ. 사회의 행복 증진에 유용한 행위가 옳은 행위인가?
ㄹ. 감정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 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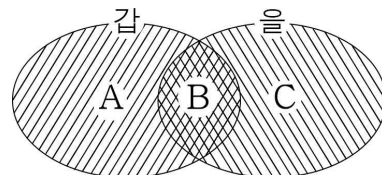
보살의 길로 들어선 자는 일체 중생을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열반[無餘涅槃]의 세계로 인도하여 완전한 멸도(滅度)에 들게 하리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색(色)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 보 기 >

ㄱ. 만물의 실상이 공(空)임을 깨달아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ㄴ. 깨달음을 얻으려면 탈속해서 중도(中道)를 실천해야 한다.
ㄷ. 보살은 마땅히 상(相)에 머물지 않는 배움을 행해야 한다.
ㄹ.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해야 불변의 자아를 찾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최고선은 내세에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p> <p>을: 최고선은 신 또는 자연을 이성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다.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만물이 생겨남을 인식해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① A: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B: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격신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
- ③ B: 신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이다.
- ④ C: 신은 만물의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다.
- ⑤ C: 인간은 자유 의지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사람의 영혼 안에는 보다 나은 부분과 보다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자가 후자를 통제할 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 자신 안에 있는 세 부분들이 각자의 일을 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방식은 개인이 정의롭게 되는 방식과 같다.

학생	입장				
	갑	을	병	정	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	✓		✓	
절제는 국가의 구성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			✓	✓
이성으로 욕구와 기개를 조절해야 올바른 사람이 된다.		✓	✓		✓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